너의 치유능력 함께 하면 더 빨리 나아

☞ 19면에서 계속

참으로 많은 연민의 정을 느끼곤 합니다. 2년 전에 한 여성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신경성 대장염으로 하루에도 설사를 수없이 하여서 약으로 치료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술의 권유를 받고 있었으며, 그 병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병의 임상적 경과를 잘 알고 또 다른 환자의 케이스들도 많이 봤으므로 제 자신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 환자에게 "약과 의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있는 치유 능력을 함께 해보면 더 잘 치유되지 않겠냐" 고 했더니 그 환자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은 의식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만 그 의식을 넘어서서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모두 관장하고 있는 너의 뿌리, 즉 참나가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라고 일러주고선 그리고 모든 걱정을 우선 쉬라고 했습니다.

집착 벗으면 苦 멸해

그때 사실 제 자신도 참 나의 치유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환자가 너무 안되었고 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이 낫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몇 달 전에 그 환자가 다시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당신이 시키는 대로 기도했더니 병이 완전히 나았고 약도 스스로 끊었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참으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의 말만 믿고 그대로 행한 결과 그 낫기 힘든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여자에게 나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어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참 나의 치유능력에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그 뒤로는 더욱 확신 있게 마음공부를 다른 환자들에게, 특히 불치의 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제가 의사로서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마음이 어떻게 물질적 차원인 육체에 작용을 하여서 불치의 병이 낫거나 나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일러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내내 그렇게 대치를 하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식구들도 대치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깐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그렇지 않아도 무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될 수 있어' 하고 관해 보세요,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도 못 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찾아와서 태아가 거꾸로 섰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병원 의사가 오진을 한 모양이지, 뭘" 그러면서 관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와서 하는 소리가 병원에 가보니까 "거꾸로 섰던 게 바로 섰대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만이 할 수 있고 누가 대신 행복을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가 자신을 믿고 밀고 가는,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소 떼가 강을 건너는데 악어들이 욱시글득시글하니까 앞서, 즉 말하자면 소 떼의 왕초가 먼저 건너가야 다른 소 떼도 들어설텐데 물에 들어서질 않으면 못 들어가죠, 뒤로 물러서죠. 근데 왕초가 딱 물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물에 들어서 악어 잔뎅이고 머리고 딛고 그냥 비호같이 건넜답니다.

그거와 같은 생각으로 해야하는데 '이런 건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안되는데…" 이런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고 안되는 게 많고 그러거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조그만 걸 가지고도 그래요. 싸우고요. 그런데 거기다 일임하여 관하면 편안하게 싱글싱글 웃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몸뚱이를 오히려 혹사시키면서 병이 들게 하면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음에 대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죠, 듣는 것도 고정되지 않구요. 또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움쭉거리는 것도 자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고가 붙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리를 확 알면 고가 따로 있나요? 내가 고라고 생각하니깐 고지 고가 없다면, 고라는 이름이 없다면 집착도 없을 겁니다. 고가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이름 가지고서 집착을 하니까 진짜 고가 되죠. 집착만 벗어지면, 그 이름을 가지고 탓을 안하면 그냥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다, 고가 멸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여여하죠.

> "정신계 자성속에 일체만법 있어
> 자유자재로 화해 나투고 돌아가니
> 苦도 病도 붙을자리 없어 걱정없네"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군요. 내 자성이 말입니다, 내 자성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하는 얘기죠. '정신계의 내 정신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 소리예요. '내 자성으로 하여 내가 여여하게 사는 삶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거예요. 또 내 불성으로 하여금, 주인공이라고 합시다. 주인공으로 하여금 '내가 일체 만법을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자성으로 하여금 자유자재 하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정된 것도 없고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고 나투면서, 그런데 고가 붙을 자리가 있고 병이 붙을 자리가 있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차가 망가지면 폐차시키고 다시 차를 꺼내면 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위 조상으로나 밑의 자녀들이나 아주 평탄하고 좋거든요. 다들 물어보세요,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서울이나 또는 뉴욕, 워싱턴 어디든지 사람들이 아주 적극 공부하거든요. L.A도 접때 갔는데 뭐 여간 적극적이 아니에요. 또 적극일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해보니까 벌써 나타나거든요. 마음 편안하지 스트레스 없지, 또 생활이 좀더 윤택하게 되지, 또 어디 회사에 다닌다면 유유하고 편안하게 슬슬 이끌리지 아, 이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이 뭐 별다른 거 있나요?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고 화목하고 또 남한테 꾸러가지 않고 그럭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못났든 잘났든 나부터 믿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그러고 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밥 한 그릇 가지고 일체 만물 만생을 다 먹이고도 되 남느니라."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네가 너 자신을 믿고 타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공덕이 되느니라, 타의의 이름을 믿거나 형상을 믿으면 도깨비 장난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귀신주머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일이냐? 각자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이렇게 말을 하셨더라면 좋을 걸 나를 믿지 않고 하니깐 지혜가 부족했던지 각자 자기라는 걸 모르고,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죠. 각자 소릴 안 해서 그렇죠, 그래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그렇게 도깨비 장난과 같고 귀신같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부터 믿어야 순서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50%의 예수님 모습으로 그냥 달려들은 겁니다. 그러니 정신계의 50%는 간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가르칠 수 있는 재료도 반이 뚝 끊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얘기죠. 기껏 가르쳐 놓으니깐 딴청하고 있죠. 가르치면 딴청하고 스님네들을 우습게 생각하고요. 스님네들이 머리 깎고 입산했을 때는 그래도 속가에서 사는 것 보다 절반이상 삼분의 이는 벌써 마음이 귀결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습게 알거든요, 우습게 알면 우습게 아는 대로 벌써 보이지 않는 데서 가고 음이 없이 딱딱 입력이 돼서 자기들한테 떨어지니 손해죠.

하여튼 이렇게 횡설수설했지만 여러분은 횡설수설하지 마시고 하하하, 침착하게요, 아까 저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한테 오는 병자… 하여튼 고치지 못하는 병이든가 고치는 병이든가 다 읍니다. 그러나 고치는 병도 만약에 열흘 갈 거라면 단 일주일도 안가고, 또 일주일 갈 거라면 단 사흘도 안가고, 단 사흘 갈 거라면 단 하루도 안가고, 하루 갈 거라면 일초도 안 걸려요. 우리가 어떻게 병만 가지고 야단을 하겠소. 병뿐이 아니라 모든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라고 우리 제자들한테 가르칩니다. 어저께 비가 오면 어떡하느냐고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비 안 맞고 설법하고 설법을 들으면 됐지 뭐 걱정이냐" 그랬어요. 오늘 비 맞으신 분 없죠? 허허허.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없으면 안되는, 자기가 없어도 안되고 자기가 없는 반면에 모두가 없는 거고 자기가 있는 반면에 모두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상대성을 어떻게 알며 또는 세상을 어떻게 알며 종교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종교 저 종교 따로따로 그러는데 결국 하나의 진리입니다. 공기주머니를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 바로 생명체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 우주 삼천 대천세계를 한 찰나에 들 수도 있지만, 그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차원이 높아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에너지가 없게 되면 뭘 가지고 사느냐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차원이 높아지면 높은 데 있는 에너지를 끌어쓸 수 있다는 겁니다, 허공에도 꽉 찼으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고, 조금조금 체험해 보시면 아주 신기할 겁니다. 그러고 삶음에 대한 맛이 날 겁니다. 모두 여러분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인공, 주인공 이름만 알지 진짜로 자기 뿌리의 주인공이 자기와 콤비가 돼서 돌아간다는 걸 모를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미국말 하는 분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있네? 허허허, (대중 웃음)

※위 법문은 1997년 6월 21일 시카고 지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 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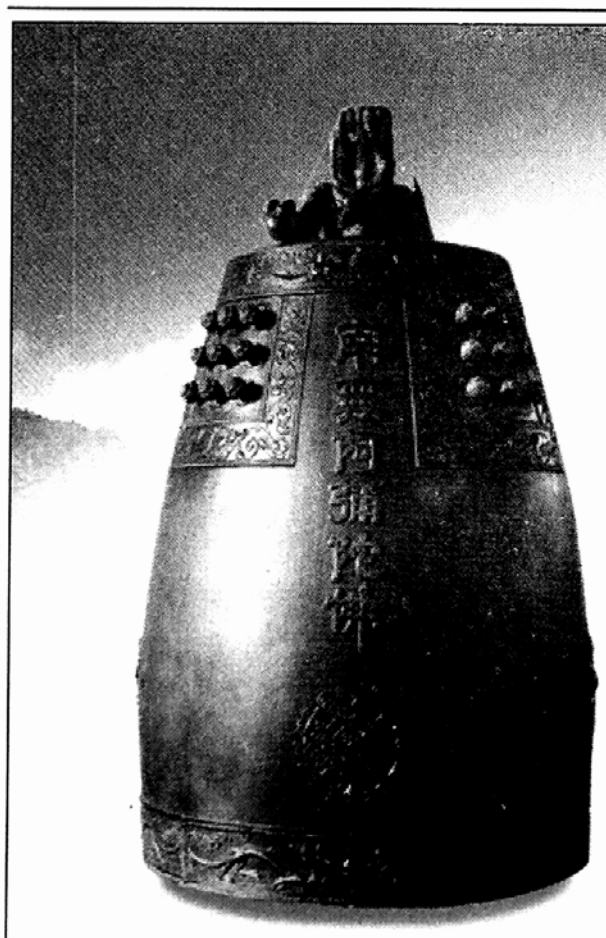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